

12/27(수) 전도서 2

전도서 1:3-11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본문 3절에서 해 아래에서 하는 우리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게 됩니다.

해 아래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 11절을 보면 3절과 9절은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말로 병행법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여기서 ‘해 아래에서’라는 것은 전도서의 키워드로서 전도서 전체에서 무려 2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의 질문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수고’ 자체가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본래 창조시에 아담에게도 타락 이전부터 노동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창 2:19-20,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또 종교개혁자들은 노동을 하나님의 소명으로까지 말하고 있습니다(칼빈의 직업 소명설). 그러나 솔로몬이 부정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해 아래에서의 삶 즉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동은 타락 이후에 참된 의미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본문 3절에서 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본래 성경적인 땅의 개념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우 7년마다 안식년과 50년마다 희년 제도를 통해서 일부 사람들이 땅을 독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모세는 토지를 공정하게 분배하고 7년마다 공동의 땅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했을 뿐 아니라 50년마다 토지를 재분배하는 희년 제도를 두어 토지 독점의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헨리 조지<모세>).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시장 자본주의 경제 체제도 인간의 탐욕을 방치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만족을 채우지 못함

솔로몬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고 고백합니다(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앞 절의 말씀들과 연결할 때 해 아래서의 헛된 수고로 인해 하는 모든 일이 무상하고 곤비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의 것들을 눈으로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요 4: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롬 8: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반복 될 뿐이고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9-10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물론 이것이 인간의 세계와 역사를 반복되는 힌두교와 불교의 세계관인 ‘윤회’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도서의 요지는 해 아래서의 삶이 이처럼 허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리석은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의 허무한 삶을 동경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목표요 자랑으로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인생의 고통과 막힘을 만나면 영적으로도 크게 방황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는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것으로는 계속해서 목마를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면서 결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욕기의 주제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욕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또는 우리의 몸이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된 기대와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인생 말년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부유하고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그 자리가 결단코 축복의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현재를 묵묵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누가 위로해 주시나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 8:26,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미국을 위한 기도:** 내년엔 미국 대선이 있고 올 1월부터 미 대선을 위한 경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필요한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이 땅의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합니다(총기, 인종차별, 마약 등등).
3.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황윤일 선교사님(페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교회를 위한 기도:** CM을 위해서 기도합니다.